

직접 본 북한 사회와 시민 통일운동

임문철*

시작하면서

꾸준한 햇볕정책이 드디어 햇볕을 보게 되었다.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 여러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계가 일반적이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은 수많은 걸림돌과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 마침 필자는 지난 12월, 사람의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여 감귤분배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북쪽의 초청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2월 초 4박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고, 방문지역도 평양과 묘향산에 한정되었지만 보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 남북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시민운동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벼랑에 선 북한의 경제상황

1) 극심한 전력난

평양 체류중에 묵었던 고려평양호텔은 500여실의 45층 쌍탑식 건물로서 위용을 자랑한다. 그러나 로비에 들어서다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전등의 일부만 켜 정도로 전기를 아끼고 있었다. 하루 밤에도 몇차례씩 정전이 계속 된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암흑의 세계 그 자체이다. 가끔 차량의 불빛만 거리를 비출 뿐 가로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주변의 즐비한 고층건물에서도 불빛이 보이는 것은 1/4 정도이며 그나마 촛불을 켜 놓은 듯 밝기가 아주 약하다. 밤 11시가 되자 식사하는 도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모두 끄고 등잔을 가져다 주었다. 평양이 자랑하는 지하궁전이라는 지하철을 구경하자는데 안내원들이 망설이다가 지금 운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다. 마침 운행이 되어 한 구간을 탈 수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운행되는 정도라고 한다. 묘향산에서 국제친선박물관을 관람하는 도중 정전이 되어 라이터 불에 의지하여 긴 복도를 겨우 빠져 나오기도 했다. 이런 사정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는 착유기나 국수공장 또는 하우스 시설 등에는 반드시 비상발전기까지 덩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경수호가 완성될 때까지 남에서 잉여석탄을 제공해 주거나, 원유를 공급해 주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극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발전설비용량 총 738.7만kW, 수력대 화력 설비비율 6대4, 미국 지원 정유 연 50만t으로 가동하는 선봉화력발전소 외 모든 화력발전소는 석탄으로 가동. 그러나 실질 발전설비용량은 200만kW에 불과, 송배전 설비 불량으로 전력손실률 33%, 연간 전력소비량 남한의 6%)

2) 연료의 부족과 유통구조의 마비

호텔의 온수는 제대로 공급이 되었지만 난방이 부족하여 옷을 껴입고 잠을 자야할 정도였다. 또한 야산에서 낙엽을 긁어 모으는 주민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묘향산을 가기 위해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를 두 시간 달리는 동안 마주친 차량이 다섯 대 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디를 가나 대중버스는 한 대도 볼 수 없었다. 자전거조차 드물고 시민들은 모두가 배낭을 짊어지고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길을 건다가 손을 들고 태워주기를 청했다. 어찌다가 화물을 실은 트럭 한 대를 만날 법도 하지만, 4박5일 동안 단 한 대의 물자수송 트럭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유통구조가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남포항에 수 천톤의 감귤을 가져다 주어도 갖다 먹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묘향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기사는 내리막길을 만나면 시동을 끄고 연료를 절약하려 애썼다. 그럴 정도이니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뻔한 일이고, 자동차나 전철의 유리가 깨진 채 운행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안내원조차 그 추운 곳에서 장갑 없이 지낸다는 것은 생산과 유통이 어떤 상태인지 잘 말해 주고 있었다.

* 천주교서문교회 주임신부

3) 공식으로 22만의 아사자를 낸 식량난

북한당국은 95년 이래 굶어죽은 주민이 22만이라고 하나 국제구호기구들은 훨씬 많다고 전한다. 연변에서 만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인과 어린이들은 이미 다 죽었고 군대마저도 굶주린다고 한다. 살아남은 이들조차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평양의 텅 빈 아파트들은 특별히 평양의 식량배급마저도 여의치 않아 식량을 구하러 농촌으로 이주했음을 말한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줄었고, 외부의 식량과 비료 지원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고 점차 식량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는 보도도 있지만, 그 좋아졌다는 상황 역시 상대적일 뿐이다. 최근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00g이었던 1인당 하루 식량배급량을, 지난 해 수확한 양곡이 바닥남에 따라 현행 200g에서 다시 150g으로 줄인다고 한다. 최소 필요량은 500g인데, 특히 도시와 동북부 산악지대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보도이다.

4)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봉수대교회는 개신교 인사들을 비롯하여 비교적 많은 외부인사들이 찾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르는 도로는 한때 포장된 흔적은 보이나 완전히 비포장이었다. 도로 총연장은 남한의 4/1 수준이라고 하나 그나마 포장률은 10%에 불과하여, 수송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항만 하역능력도 12/1 수준이며, 철도 총연장은 남쪽에 크게 뒤지지 않으나 전철화율이 79%로 전력사정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니, 아오지에서 평양까지 두 달 걸린다고 한다. 연료가 떨어지면 제자리에서 며칠이고 서 있는게 보통이라고 했다.

2. 폐쇄적이고 광신적인 사회

1) 사회의 폐쇄성

우리 일행의 방북은 이제 북한 사회도 개방으로 나온다는 징표이기는 했으나, 막상 북한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평양에서 북경 공항에 내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 정도로 너무도 제한적이었다. 그들이 안내하는 곳 이외에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음을 물론이고 사진조차 마음대로 찍지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서도 마지막 날에는 필름을 달라고 하여 검열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빼어 버린다. 막상 확정된 목적지에 도착해도 버스에서 내리려면 잠시 기다리라고 한다. 안내원이 그쪽 안내원과 이야기한 후에야 비로소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봉수대교회와 장충성당을 방문하고 싶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미처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었다. 우리가 워낙 강하게 요청하자 타협을 요청해 왔다. 버스 안에서 구경만 하라는 것이다. 막상 도착하여 다시 간곡히 부탁하자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성당에서는 신부만 내려서 그나마 마당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허락되었다. 나머지는 여전히 버스 안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폐쇄성은 극심하였다.

2) 이상화를 위한 거대한 투자

평양시는 김일성의 기념물과 선전문구들로 가득한 도시다. 입구에서 46m의 천리마 상을 만나게 되고, 김일성 환갑을 맞아 인민들이 헌정했다는 30m에 달하는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올라다 보며 주눅이 들게 된다. 세계 최고라는 170m 짜리 추체사상탑과 빠리 개선문보다 더 큰 규모의 김일성 개선문, 수만평에 달하는 인민대학습당, 노동당 창건기념탑 등을 보고 싶노라면 이런 투자들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거나 경제발전엔 투입되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인민들이 굶어죽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3) 종교보다 더 강한 수령 신앙

평양에서는 언제 수령님이 방문하신 건물이라는 패가 달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대동강 모란봉의 울밀대 안내문에도 위대한 유물이므로 잘 보존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붉은 글씨로 써어 있었다. 모든 것은 김일성의 지시에서 나온다. 인민은 수령의 가르침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심각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전탑은 밤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보존하여 전시하고 있는, 주석궁을 개조한 금수산 대궁전을 방문했을 때,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도열하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300m는 족히 될 에스컬레이터는 천천히 움직이는 10여분 동안 수령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배

를 마치고 오는 사람들을 보니 눈시울이 젖어있다. 사람들은 시신을 돌아가며 모두 세 번을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참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겨우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안내원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운명하기 직전까지 불철주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다가, 몸과 마음 다 내어놓으시고 이제 붉은 혁명의 깃발 한 폭만 몸에 두르신 채 가신 수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불손한 행동을 하면 우리 인민들이 가만 아니 있는단 말입니다.” 그의 말이 의례적 수사나 단순한 험박이 아니라 그의 신앙심에서 나온 확신임이 분명했다. 우리가 나온 후에도 참배의 행렬은 그치지 않았고, 그 많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느낌도 없었다. 그들은 실제로 수령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3.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1) 준비 없는 통일은 제앙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에 조그마한 징검다리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굴보내기 운동을 했고, 평양까지 다녀 왔다. 그래서 안내원들이나 식당 종업원들과 노래를 하게 되면 으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어깨동무하고 불렀다. 그러나 북쪽을 직접 보고 온 지금은 “만일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큰 일”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평양시민이나 군인마저도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지금, 갑작스럽게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거덜난 북쪽을 남쪽이 흡수할 수 밖에 없다면 남쪽 경제도 엄청난 혼란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미 살펴본대로 북쪽의 경제 파탄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김일성을 하느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교도들이 개방된 사회에 그냥 내버려진다면 그들은 심각한 인격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믿어온 가치관과 신앙체계가 온통 흔들리다 보면 그들은 모두 자아상실과 혼돈 속에 정신이상자가 되고 말 것이다.

2)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민족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국제사회적 환경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런 외적 요인보다 우리 내부의 요인이 더욱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분단 이후 6.25와 실항사태 등으로 상호간에 증오와 편견이 극심해졌고, 무장공비와 잠수함 침투, 서해교전 등으로 이런 상처가 계속 덧나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남북 양측에 화해와 일치를 바라는 세력만큼 한편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극력세력들의 위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통일비용만을 생각하여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계층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유일한 방법이다.

3)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우리보다 비교적 적대감이 적고, 경제적 차이도 크지 않고, 또한 분단 기간도 짧은 그들도 지금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준비작업과 적절한 과도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독일은 오랜 세월을 두고 통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인간적인 이해부족에서 오는 동서독 주민간의 차별과 감정적 충돌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 비해 더 어려운 이질화와 상호폐쇄의 배경을 지닌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1)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필자는 방북을 통해 북쪽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메스컴을 통한 단편적인 정보는 편견과 물이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많다. 직접 북쪽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폐쇄성과 우상화 등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의 환대(적어도 최선을 다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습)와 헌신성 그리고 인간미(특히 평양산원에서의 만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짧은 만남에서도 최소한 그들이, 대처상황에서 강요받은 개념인 ‘원수’나 ‘빨 달린 괴물’들이 아니라, 같은 핏줄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한 민족임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열정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정책보다도 서로 만나 대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민간교류가 급격하게 느는 것은 바늘 귀에 불과한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연상케 해 준다. 특히 정상회담 발표 이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 남북 인터넷바둑과 금강산 렐리 등 이벤트 등이 거듭 성사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남북교류가 남측의 방북 일변도였는데 이제 서로 오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그동안 절름발이 형태였던 교류가 쌍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매우 고무

적인 현상이다. 당장은 북쪽의 민간교류 허용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상이 짙으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희생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2)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상호주의의 극복

99년 4월 북경 차관급 회담은 3년 9개월만에 만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료를 주고, 저쪽은 이산가족상봉을 허락한다'는 교환원칙이 합의되지 않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주고 받는 것이 정치분야 교류의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정치회담이 아닌 민간단체의 사회문화교류의 형식을 빌렸다면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교류에는 대가 없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는 상호주의를 고집하며 경제적, 인도적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관광과 문화교류 역시 현금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연대기도 갈수록 거액이 되어간다. 남쪽이 북에 가서 공연할 때도 남쪽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필자 일행도 초청 형식이었지만 체류기간 동안 단 한번의 식사 초청 외에는 모든 경비를 우리가 부담할 뿐 아니라 식사비용을 메뉴에 나온 금액의 두 배나 지불하여야만 했다.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이 무산된 배경에는 과도한 지원 요청이 초청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쪽의 홍수 때 한 민족으로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건 없는 인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단 말입니다." 하는데, 북쪽의 어려움은 지원과 교류를 통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생존하기 위해 범죄가 기승을 버리고 악독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데 그런 연후에 통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주의는 꼭 동시적 상호주의일 필요는 없다. 가면 오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민족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투자라는 의식으로 편협한 상호주의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교류 부문이다. 예를 들어, 북의 산하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을 때, 그 대가는 언젠가는 통일될 우리 공동 후손이 치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복구와 보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원조나 시혜가 아닌 의무로 접근할 수 있는 세력은 환경단체 등 시민운동단체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은 남북 모두 여론과 기득권층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활발한 민간교류에 의해 조건이 성숙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민간교류와 협력은 정치적 해결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어떤 해결도 신뢰가 바탕이 되며, 신뢰는 거듭된 만남에서 비로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뢰의 문제는 우리는 선이고 그래서 반드시 저쪽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심각한 불신의 문제가 있다. 또한 통일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역시 민간교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DJ 혹은 김정일이든 그 어느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이룩하는 제도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남과 북의 민초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제국주의와 국제역학관계의 희생자로서 분단과 갈등의 반세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화해와 일치의 기운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단순한 구경꾼일 수는 없다. 통일이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우리의 투신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평양도 백두산도 구경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분단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 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경제인, 종교인, 교육자, 노동자, 학생 할 것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